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2012년 3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(2110-4829), 이윤진 사무관(2110-5316)		

한-미 FTA 활용, 우리 기업 이렇게 준비한다

- FTA무역종합지원센터,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 실시 -

□ 한-미 FTA 발효에 앞서 3.12~14일간 지난 2.21일 민·관 합동으로 무역협회에 개소한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일부 수혜 업종 중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,

○ 기업의 한미 FTA 준비현황을 점검하고,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'현장 컨설팅'을 실시했다고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가 밝힘

□ 이는 12.22일 발표된 「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」을 통해 기업 FTA활용을 위한 애로를 원스톱으로 직접 해소하고자 설립한 'FTA 무역종합지원센터'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됨

○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3.7일 '한-미 FTA 발효 업종별 전략회의'를 개최한데 이어,

- 이의 후속조치로 업체에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업종별 단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하여 통관절차,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FTA 활용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음

* 센터의 관세사,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(KTNET), 업종별 단체의 해당업종 전문가가 합동으로 컨설팅팀을 구성·운영

< 현장컨설팅팀 구성 >

FTA무역종합지원센터	+	업종별 단체
관세사,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 등		해당업종 전문가

□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한-미 FTA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명하며, FTA 활용을 위해 이번 컨설팅과 같은 적극적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
○ 극세사 클리너를 생산하는 섬유업체 A사는 완제품을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한-EU FTA 발효로 매출향상을 기록함

- 업체 관계자는 "한-EU FTA 발효로 유럽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비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해, 수출물량이 20%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"라고 밝히며, 한-미 FTA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냄

- 다만,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센터의 컨설팅팀을 통해 품목분류 확인, 원산지 확인서 등에 대한 점검과 안내를 제공하였음

○ 자동차 샤시를 수출하는 B사는 생산품목 3,800개 중 260개 품목이 한-미 FTA로 관세혜택(2.5%→0%)을 보게 되어 발효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컸음

- 다만 업체는 "한국과 미국간 HS코드가 상이하여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시 분쟁발생이 잦아 업체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"고 언급하며, FTA 관련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업체별 실무자 간담회 개최를 요청함

○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C사는 금번 한-미 FTA발효로 수출제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힘

- 동 기업은 이미 한-EU FTA의 무관세 혜택(1.7%~2.7%)을 받고 있었고, 센터의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"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원산지시스템 구축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"라고 언급하며,

- "한-미 FTA 발효로 매년 약 2억원 이상의 관세혜택을 기대하고 있고,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바란다"라고 업계의 FTA활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

□ 한-미 FTA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, 업계는 특혜관세 활용방법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음

* 각 FTA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('11년, 무역협회, %): 한-EU(47.2), 한-미(32.6), 한-아세안(6.9)
* FTA활용 애로사항('11년, 무역협회, %): 활용절차 복잡(28.6), 자체 시스템 구축(17.1)

○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컨설팅은 기존 FTA 활용지원을 개선하여 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며,

- 향후 지역 FTA활용센터에 권역별로 관세사 등 FTA 전문가와 해당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전문가를 배치·활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함

□ 더불어, 지식경제부에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과 함께,

○ 기업들이 원하는 FTA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「통합무역정보시스템*」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정보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임

* 관세, 원산지표시, 규격, 기술표준, 인증, 환경규제 등 품목별(HS 6단위)로 제공
* 기업이 FTA지원에서 바라는점('11년, 무역협회, %):
FTA정보인프라 구축(30.1), FTA시스템 구축(29.4), FTA교육(20.9)

○ 또한, 적극적 美시장 진출을 위해 수혜업종 중심의 마케팅 강화 등 FTA의 가시적인 활용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함

별첨 **찾아가는 FTA 활용지원 컨설팅 추진계획**

1. 개요

○ 목적 : FTA활용 업종별 지원체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 제고

○ 일정 : 기업 문의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일정 협의 후 방문

* '12.3.12~14일간 1차로 자동차 부품, 기계, 섬유 업종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

2. 현장컨설팅 지원방안

○ 센터 및 업종별 단체의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해당업체를 방문, 통관절차,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FTA활용 관련 분야 컨설팅 제공

- 센터의 관세사,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(KTNET), 업종별 단체의 해당 업종 전문가가 합동으로 컨설팅팀을 구성·운영

< 현장컨설팅팀 구성 >

FTA무역종합지원센터		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
관세사,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 등	+	해당업종 전문가

- (지원내용)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할 때까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 교육

구분	지원내용
FTA활용일반	품목분류, FTA 특혜관세율, 원산지기준,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등 교육
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	기업별 적정 시스템 선정지원, 시스템 활용 교육, 시스템컨설팅
사후검증 대응	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지원 및 애로사항 현장조사

< FTA활용 컨설팅 문의 >

○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566-5114 (홈페이지 : www.okfta.or.kr)